

# 신차 배정·차입금 만기...GM 이번주 중대 고비

### 글로벌 신차 배정 미루기 어렵고 차입금 재연장 조치 필요 노조, 임금동결·성과급 지급 불가 수용... 복지후생비 쟁점

한국지엠(GM)이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본사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과 한국GM이 GM으로부터 빌린 차입금(7000억원) 만기가 이달 말에 겹쳐 있어서다.

자동차업계와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번 주 재개될 노사 임단협 교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GM '글로벌 신차 배정 더 미루기 어렵다'는 26일 GM과 한국GM에 따르면 한국 부평, 창원 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 여부는 이달 말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국GM 관계자는 "3월 초부터 본사의 글로벌 신차 배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국GM 상황 때문에 확정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 사업장들의 생산 일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3월 말 이후까지 신차 배정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게 본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최근 GM의 경영 방침은 채산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라며 "사측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노사 교섭에서 포괄적이거나 인건비 절감 등을 포함한 '임단협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노조에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GM은 이미 수차례 부평공장에 스포츠 유틸리티(SUV·트랙스 후속 '9BUX' 프로젝트), 창원공장에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신차를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GM 관계자는 "아직 SUV, CUV 신차의 한국 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임단협 결과와의 연계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차입금 만기 도래--GM 본사측 재연장 조치 필요=3월 말은 한국GM 입장에서 전환점이다.

한국GM은 이달 말 다시 GM으로부터 빌린 7000억원 차입금의 만기를 맞는다. GM은 지난해 말 7000억원의 채권 만기를 올해 2월 말로 연장했고, 지난해 23일 이사회에서도 만기를 '3월 말'로 한 차례 더 늦췄다.

당시 "실사 기간을 고려해(3월 말까지) 회수를 보류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재 실사 진행 속도로 미뤄 이달 말까지 실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GM은 이달 말 돌아오는 채권의 만기를 다시 연장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3월 말 만기 연장 등으로 한 차례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4월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한국GM 감사보고서(2016년 말 기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8월까지 무려 9880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출몰이 돌아온다. 대부분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GM 홀딩스 LLC' 등 GM 본사와 계열사로부터 한국GM이 빌린 돈으로, 이자율은 4.8~5.3% 수준이다.

이어 4월 말에는 지난해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회망퇴직을 신청한 약 2600명에 위로금도 지급해야 한다. 2~3년 치 연봉, 평균 2억원으로만 계산해도 약 5000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결국, 4월 말까지 차입금 만기 연장에 실패할 경우 한국GM은 약 2조3000억원(7000억+9880억+5000억+7200억)을 어디서 빌려서라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GM "복지후생비 연 1000억원 삭감해야 흑자 기반" 주장=현시점에서 한국

GM 경영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2018년도 임단협 교섭 결과다. 7차 노사 교섭은 이르면 27일 열릴 전망이다. 한국GM은 이번 임단협을 통해 적어도 연 2500억원의 인건비 절감이 이뤄져야만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5년 내 흑자 구조 달성의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노조가 사측의 교섭안 가운데 '올해 임금 동결, 성과급 지급 불가' 방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연 1400억원(5년간 평균 1인당 성과급 1000만원×회망퇴직 후 남은 1만3600명)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사측 교섭안의 또 다른 핵심인 '복지후생비 삭감'을 노조가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측은 지난해 22일 공개한 첫 교섭안에서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대거 복지후생비 항목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이 커지자, 이달 21일 6차 교섭에서 통근버스 운행 노선·이용료 조정, 학자금 지급 제한(최대 2차녀), 중식 유상 제공 등 복지후생 항목 축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축소,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와 같은 다른 복지후생 절감안은 수정안에 그대로 남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연협뉴스



윤홍식 에이엠특장 대표가 지난 21일 안전기능을 강화한 '압축형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에이엠특장, 안전성 높은 친환경 청소차 선보여

### '양수 스위치' 적재함 옆면 장착

### '압축형 재활용품 차량' 개발

쓰레기수거차 뒷면에 끼여 다치는가 하면, 쓰레기수거차 후미 발판에 올라탄 채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이 차량에 치이는 등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26일 근로복지공단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는 15건, 골절을 비롯한 신체 부상사고는 1465건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기업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제품을 선보여 관심이 쏠린다.

친환경 청소차량 제조 전문기업인 ㈜에이엠특장(대표 윤홍식)은 최근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내 본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방재성) 주관으로 열린 지역 언론 기관 초청 기업투어 행사에서 새로운 '압축형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소개했다.

에이엠특장이 이날 내놓은 '압축형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

인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선보인 차량은 서울특별시에서 범 납품된 것으로, 작업자가 차량 뒷면과 적재함 사이에 끼여 다치거나 숨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석에서 차량 뒷문을 닫을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작업자가 두 손으로 동시 조작해야만 이용가능한 '양수 스위치'를 적재함 옆면에 장착해 작업자가 직접 확인한 뒤 차량 뒷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윤홍식 대표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제품을 개발했다"면서 "우리 회사의 청소차량은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산업단지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수기업 가운데 기술력과 뛰어난 성과

를 창출하고 있는 지역 강소기업을 발굴, 언론홍보 등을 통한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8회째 이어오

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기아차 고급 대형세단 '더 K9' 내달 출시

기아차가 완전히 바뀐 '더 K9'으로 고급 대형세단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아차는 최근 '더 K9' 미디어 설명회를 열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계약에 들어갔다. 정식 출시일은 다음 달 3일이다.

6년 만에 완전히 바뀐 모델로 선보이는 더 K9은 차량 곳곳에 '감성, 품격, 기술'이 결합된 플래그십 세단'을 목표로 한 기아차의 의지가 묻어났다.

실내는 파노라믹 뷰 디자인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 운전 시 고객 행동을 분석해 91개의 스위치를 73개로 통합, 편의성을 강화했다.

현대·기아차 모델로는 처음으로 색상 관련 권위 있는 기관인 '팬톤 색채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7가지 테마 색상,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모리스 라크로와'의 야 날로그 방식 시계를 적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차체 크기는 기존 모델과 비교해 전장이 25mm, 전폭이 15mm, 축거는 60mm 각각 커졌다.

첨단 주행 기술로는 ▲차로유지보조(LFA) ▲후측방모니터(BVM) ▲곡선구간 자동감속 기능이 포함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터널연동 자동제어 기능이 국산 고급차 최초로 도입됐다.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의 감지 가능 범위는 자전거와 대형차까지 확대됐고 안전하차보조(SEA) 기능이 국산 대형세단 중 처음으로 적용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벤츠 '메르세데스-AMG GT' 한국시장에 나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정통 스포츠카 2018년형 '메르세데스-AMG GT(사진)'와 상위 모델 '메르세데스-AMG GT S'를 한국 시장에 선을 보였다.

2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가 내놓은 메르세데스-AMG GT는 고성능 차 브랜드 메르세데스-AMG가 2009년 선보인 'SLS AMG'에 이어 독자 개발한 두 번째 스포츠카다.

2018년형 메르세데스-AMG GT와 GT S에는 기존 다이아몬드 그릴 대신 GT 제품군(메릴리)의 상징인 크롬으로 감싼 15개의 수직 막대 형태의 'AMG 파나메리카나' 그릴이 적용됐다. 긴 보닛과 근육질의 후면부는 스포츠카로서의 메르세데스-AMG GT와 GT S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엔진은 AMG만의 '1인 1엔진'(One Man One Engine) 철학에 따라 독일 아펠바흐 메르세데스-AMG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생산됐다. 각 엔진 제조 기술자는 엔진 블록에 크랭크 샤프트를 탑재하는 것에서부터 캠샤프트로 엔진을 연결하고 엔진오일을 채우기까지의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AMG 엔진에 자신의 서명이 새겨진 명판을 엔진에 부착한다.

안전 사양으로는 프리-세이프·충돌방지 보조·주의 보조·사각지대 보조·차선유지 보조 등의 장치가 탑재됐다. 2018년형 메르세데스-AMG GT와 GT S의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각 1억7300만원, 2억1200만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 현대차 '아이오닉 2018 시리즈' 판매

상품성은 높이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아이오닉 2018(사진)'이 최근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현대차는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로 나누는 '아이오닉 2018 시리즈' 판매에 들어갔다. 세이프티 언락(Un-lock) 기능을 기본 탑재하고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IMS), 하이빔 보조(HBA), 운전자주의 경고(DAW) 등을 추가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인 '카카오 I'(아이)를 적용했으며



블루링크 무상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커넥티드 서비스도 향상됐다.

모델별로 ▲일렉트릭 3915만~4215만원 ▲하이브리드 2200만~2635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245만~3425만원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적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b>초대 화랑</b>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b>고 전 방</b>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b>셋강다슬기</b> 서구 풍곡로 12번길 11(중앙고 정문앞) 다슬기수제비·탕, 다슬기토정탕, 다슬기갈·오리백숙, 다슬기 두부전골 단체손님환영 대표 김병환 ☎062)233-3636	<b>동양철학원</b>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b>금강버티컬</b>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b>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b> 동구 밤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b>바른글씨교정원</b>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정문사거리 약림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감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b>하안나라 운동화세탁</b>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중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월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b>고 흥 나 루 터</b>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사브사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b>내담대구탕·찜</b> 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 대표 한혜숙 ☎062)471-5050
<b>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b>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b>청학철학원</b>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현,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섭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b>으뜸공인중개사</b>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일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b>신신 예술의 집</b>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b>서울표구점</b>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b>무 크</b>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b>양지공인중개사</b>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b>박당 화랑</b>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b>석당 화랑</b>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b>토산철학원</b> 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b>국수나무용봉점</b>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b>한솔도시락 서영대점</b>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